

# 전북대병원에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필요해...7월 1일~연말까지 3억원 투입 예정

전북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북대학교병원에 감염병관리본부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이후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4개의 시·도를 선정해 감염병관리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선정 대상에 전북이 서울, 부산, 제주와 함께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오는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이를 위해 총 3억원(국비 1억5천, 도비 1억5천)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병원 내 설치돼 총괄운영팀과 감염병감시팀 등 총 6개 팀과

전문인력 16명으로 구성되는 감염병관리본부는 원광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을 거점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권역협력체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이 기관은 감염병 역학조사와 통계 분석 능력을 갖춰 지역단위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지역 풍토병 원인 및 통계분석, 지역내 중소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이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감염병감시팀

이 매주 소식지를 발간해 감염병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행동수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에 감염병 관리본부가 설치·운영되면 간 중앙차원의 관리에 의해 시행했던 사업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으로 감염병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도는 '전라북도 감염병 민·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감염병 관리본부와의 밀접한 연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상황 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건요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최신 전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업무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향상되고 의료감염이 감소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자료 분석을 통해 계획한 지역 맞춤형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쯔쯔가무시증 등 호발 감염병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본부 운영을 통해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업무 역량이 향상되고 감염병 조기발견을 비롯해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 도, 산업단지 재난안전 워크숍 가져

전북도는 22일 부안 대명콘도에서 산업단지 재난안전 협업체계 구축 및 기관별 지도·점검계획 발표 등을 통해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산업단지 재난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도 및 산업단지관할 소방서, 시·군 재난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산업단지 예찰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업단지 재난안전 결의문 낭독,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27명과 자문단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운영계획, 기관별 지도·점검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산업단지 재난안전 결의문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산업단지 재난안전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결의했다.

또한, 특강으로는 안전보건공단 전북사부지사장의 '안전의 비용과 편익, SMA(주)대표의 '화학물질 장외영향 평가 이해', 송명희 전주대학교수의 '합계하는 힐링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워크숍 통해 도 산업단지 관할 시·군·소방서 및 유관기관, 그리고 산업단지 재난안전 예찰단 간에 무실역행 정신으로 소통과 업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전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 국토부, 무궁화열차 탈선 사고수습대책본부 운영

국토교통부는 22일 전라선 울춘역 구내에서 발생한 무궁화열차 탈선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수습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용산역을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을 향하던 제1517 무궁화 열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전라선 울춘역 인근에서 기관차 1량과 객차 4량이 선로를 이탈하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기관차 양모(53)씨와 부

기관사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양씨가 숨졌다. 승객 7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 6명은 귀가하고, 1명은 현재 치료 중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김경환 국토부 2차관이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철도안전감독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사고 조사와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

/박용주기자

##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지원 9개기관 협의회 출범

전북도는 최근 3년간 도내 농식품의 수출 증가세가 감소하는 국면을 타개하고자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지원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와 14개 시·군을 포함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등 9개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지원기관들은 앞으로 전북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유망 내수 식품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해 각 기관들의 수출 지원 사업을 물론 추진실적과 계획 등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지원기관 간 협력 체계 속에서 수출 생산자(조직) 및 수출업체 정보를 연계하고 효율적 홍보는 물론 도내 수출 농가(단지)와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승구 농축수산물식품국장은 "앞으로 '전라북도농식품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활성화해 잠재되어 있는 농식품 분야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원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업을 통해 도내 수출농가(단지)와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재미있는 빵 만들기

어린이들이 22일 오전 고창군 상하면에서 열린 농장과 체험시설, 식당·숙박시설 등을 모두 갖춘 신개념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상하농원'의 오픈 기념식에 참석해 빵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권연기사 11면)

## 도, 민간환경단체와 지구의 날 기념 '그린웨이 환경축제' 개최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북도는 민간환경단체와 기업 등과 함께 '그린웨이 환경축제'를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전북도청 광장 일원에서 개최했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22일로 지구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1970년도에 제정했다

도에서 열리는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올해 9회째로 도내 환경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환경관련

행사나 이벤트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사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민·관·기업 참여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G9 IN LIFE'이란 주제로 82개 환경단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행사, 기획전시, 문화공연, 환경체험 등 6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념식에서는 그린웨이 환경축제 주제가 '그린웨이 송' 발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전라북도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G9 IN 그린콘서트'를 진행함으로써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다

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환경 관련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여 개최하는 축제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축제를 찾는 모든 도민들에게는 환경의 소중함과 가치, 지속가능한 삶의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주간(주말),아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CEO, 2%부족한 점이 있다면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사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소통과 감성의 사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 ⑤ 차명운영(유치부,초등부)함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겸임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만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